



KOCHI자료 10-020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작 성

베이징KBC 박 한 진 부장

감 수

KOCHI 수석연구위원 곽 복 선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요 약]	1
I. 2010년 실적 평가	2
1. 평가	2
2. 부문별 실적	2
II. 2011년 환경 전망	9
1. 대외환경	9
2. 대내환경	11
3. 성장 시나리오	13
III. 2011년 정책 방향	16
1. 정책기조	16
2. 재정정책	16
3. 통화정책	17
4. 수출투자정책	18
5. 개방정책	19
IV. 12.5 계획과 향후 5년 키워드	20
1. 12.5 계획	20
2. 향후 5년 키워드	24

[요약]

2010년 중국경제는 견고한 펀디멘탈 속에서 10% 내외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완만한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내수 서비스부문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우려했던 위안화 환율 급변동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과열이나 위기 과정의 급랭에서 벗어나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초 예상 폭을 뛰어넘으며 장기화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중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 대내외 환경은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글로벌 차원의 더블딥 및 고(高)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010년 일시 회복기미를 보였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재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등 전통적 성장동력과 건전한 펀디멘탈이 유지돼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12.5 계획(2011~2015) 원년에 신규 정부투자 프로젝트와 내륙지역 도시화 프로젝트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물가와 부동산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정책당국을 괴롭히는 민감한 이슈로 남게 될 것이다.

2011년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의 실질 증가율이 2010년 수준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나 성장률 9%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내외의 양호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도기에 적합한 연착륙형 시나리오이다.

2011년 정책기조는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물가관리,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은 강도를 소폭 줄여가면서 방향성 측면에서 단순 SOC 투자 보다는 구조조정 효과를 지향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유동성 축소 및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투자정책은 2010년의 틀과 방향을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신보호주의의 지속으로 국제통상마찰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 및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7대 신흥전략산업은 중국의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유망 분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요청된다. 향후 5년 즉 12.5 계획 기간 중국경제의 키워드로는 그린 비즈니스, 온라인 쇼핑, FTA, 권역경제(광역권 개발전략) 등을 제시한다.

I. 2010년 실적 평가

1.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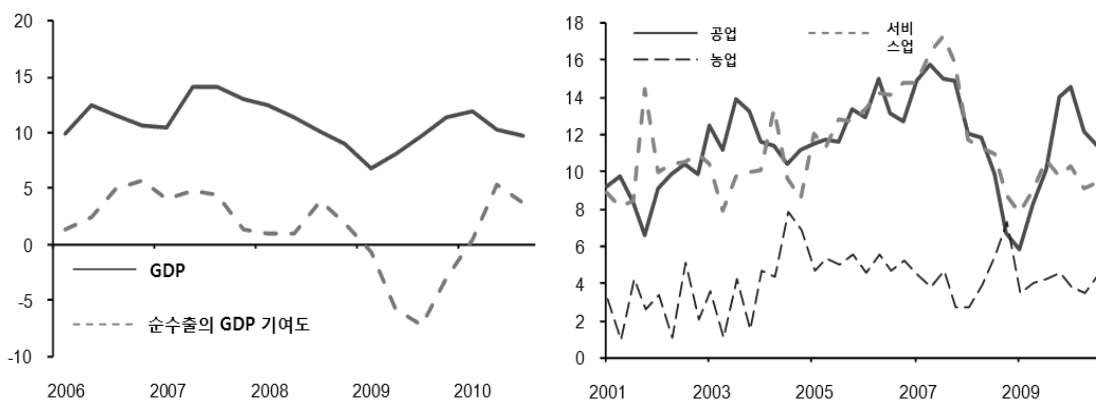
□ 글로벌위기 대응 성공

- 2010년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견고한 펀디멘탈을 유지
 - 중국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자 4조 위안의 재정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발표('08.11.5), 시행
 - 이로 인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단기 국내수요와 내적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공업 주도의 자본집약적 성장 시현
- 중국정부의 위기처방이 적절성, 시의성, 규모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음을 의미

2. 부문별 실적

□ 성장 : 고성장 속 구조적 변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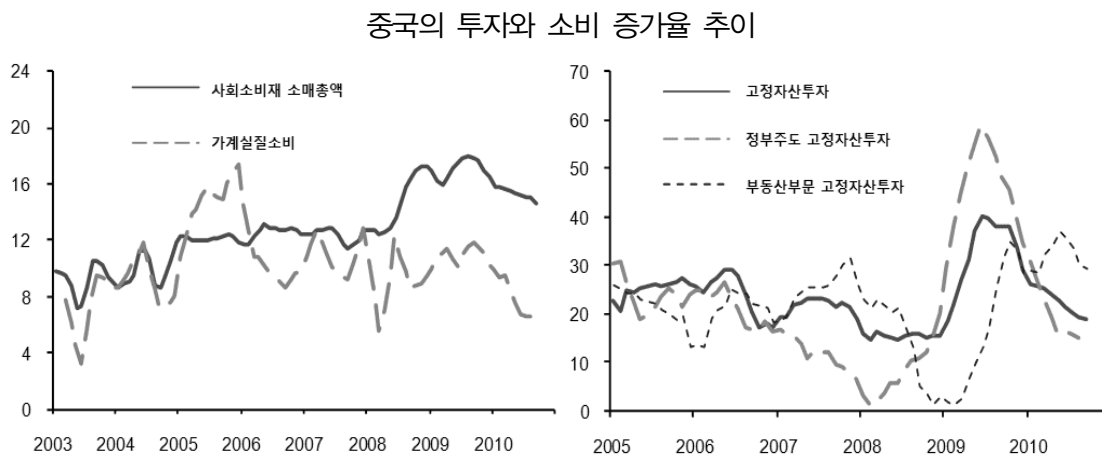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와 구성(%)



자료원 : CEIC, World Bank

- 경제성장률이 1분기 11.9%, 2분기 10.3%(상반기 10.6%)에서 3분기 9.6%로 둔화 추세이나 기대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중국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과열이나 위기 과정의 급랭에서 벗어나 연착륙 중인 것으로 평가
 -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고후저(前高後低)의 형세를 뚜렷이 보이며 점차 낮아져 연간 10%에 달할 전망
- 2009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였던 순수출이 2010년 플러스로 돌아서며 세계경제 회복 및 중국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제고
 - 공업부문(특히 중공업)이 하락했으나 서비스부문이 지속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성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 투자와 소비 : 증가율 완만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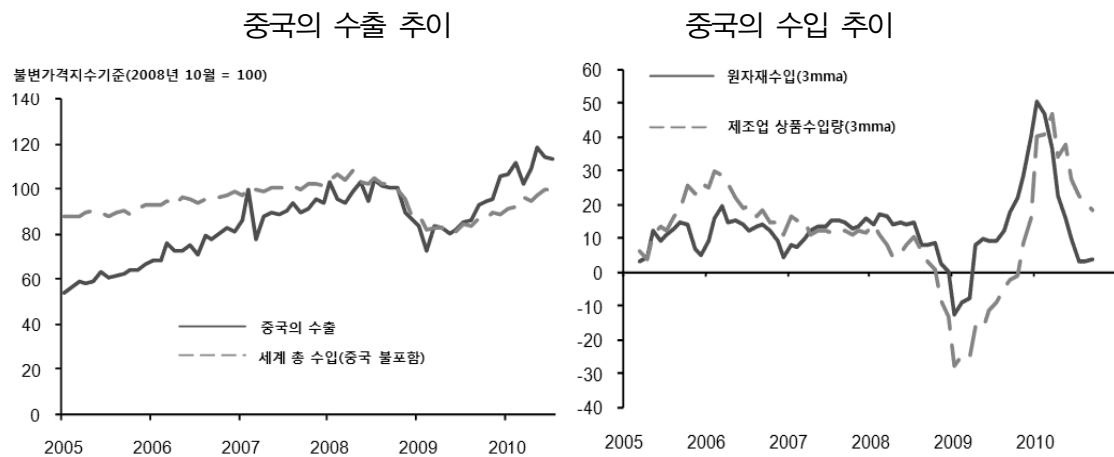


자료원 : CEIC, World Bank

- 정부주도투자가 2009년 대폭 상승세에서 2010년 정상화추세로 돌아서면서 사회총투자 증가율을 하회
 - 부동산부문 투자증가세가 여전히 높아 사회총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지 않음

- 정부가 4월 이후 부동산 억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음에도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 상 11월 하순까지 부동산 건설 및 투자가 대폭 위축되는 현상은 미발생
- 2010년 연중 이어진 식품가격 상승과 도시 실질소득 증가율 둔화, 부동산 판매 증가율 둔화 등으로 1~3분기 가계실질소비 증가율이 완만해짐
 - 농촌의 경우 소득증가율 완만 추세 속에서도 임금인상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 확대 조치 등으로 일정부분 상쇄 효과
 - 그러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높아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은 완만한 둔화세

□ 교역 : 무역수지 흑자 재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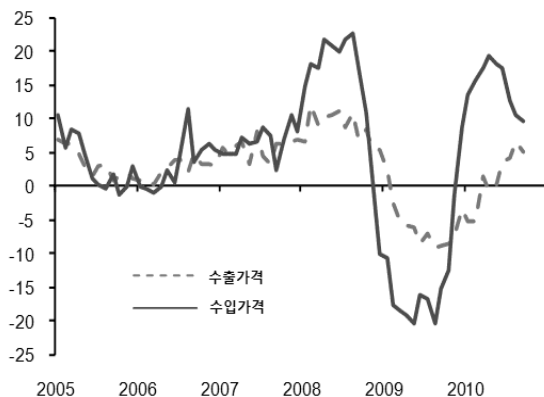
자료원 : CEIC, World Bank

-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글로벌 수입 증가율을 상회
 - 글로벌 수입수요가 '쇠퇴→회복→주춤'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입(불변가격 기준)이 1년 전 대비 낮은 수준
 - 중국의 경우 1~10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하면서 중국 상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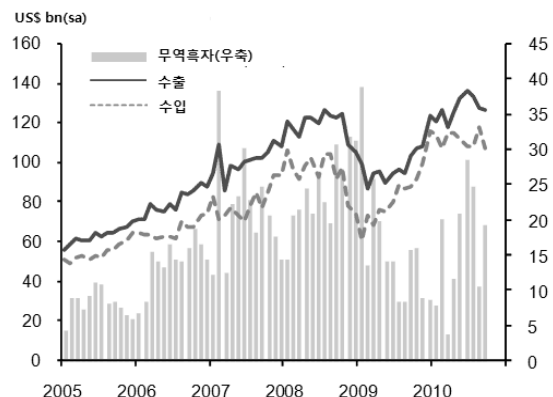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

- 경기자극정책에 따른 수입급증 효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원자재 등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
 - 그러나 기계설비, 자동차 등 수입 호조로 3분기 상품 총수입량이 글로벌 위기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해도 20% 이상 증가세
- 2010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 및 글로벌 제조업 과잉에 따른 수출가격 억제 요인이 발생, 중국의 교역조건(TOT)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
 - 그러나 하반기 들어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 회복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 재상승

중국의 교역조건 변화 추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추이



자료원 : CEIC, World Bank

□ 물가 : CPI ↑, PPI ↓

- 2010년 소비자물가(CPIT)는 5월(3.1%) 3%대 진입 후 7월 3.3%, 8월 3.5%, 9월 3.6%로 상승한데 이어 10월(4.4%)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국내 기후불순과 국제 식품가격 상승이 중국 CPI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식품가격을 자극

○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3분기 이후 재상승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수입 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

– 제조업 생산성 제고가 최근 임금 대폭 상승세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 근원 인플레이션은 감내 수준

– 그러나 2009년 하락했던 단위생산 노동력 비용이 2010년 임금 대폭 상승세로 3분기 이후 뚜렷하게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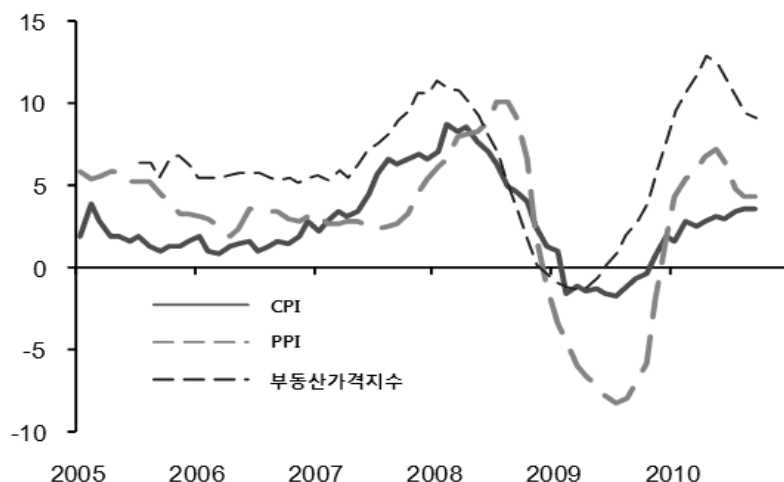
*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 하는 품목을 제거한 후 산출하는 기초적인 장기 물가상승률

○ 식품 외에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 4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新國10條)으로 6~8월 가격이 일시 안정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판매량이 재상승

– 11월 이후 주택공적금 대출요건 강화, 첫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 할인혜택 축소 등 추가 조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억제정책 도입 가능

중국의 물가 및 부동산가격 추이



자료원 : CEIC,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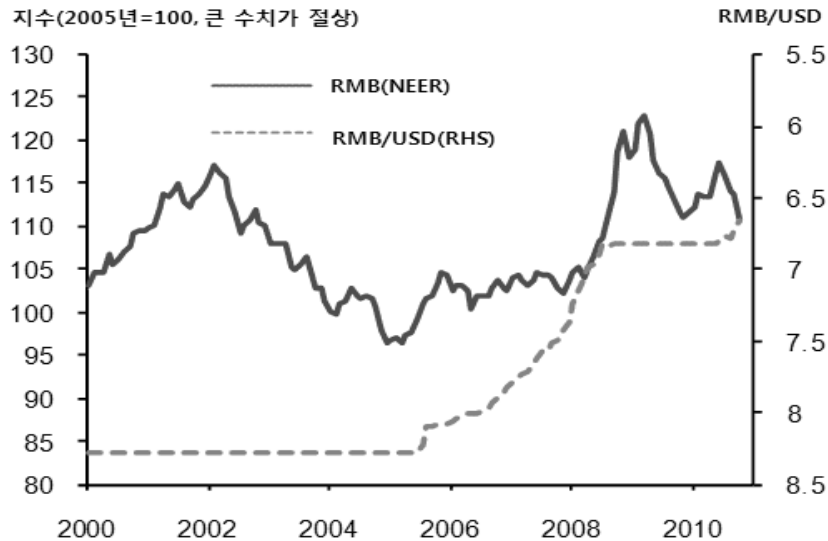
중국 1년 새 물가 얼마나 올랐나?

상품명	2009.11월	2010.11월	100위안 구매량
후지사과	3.95위안/kg	5.94위안/kg	30개 감소
소형 즉석면	2위안/개	2.2위안/개	4.5개 감소
마늘	6.9위안/kg	11.15위안/kg	6kg 감소
식용유	17.91위안/kg	18.40위안/kg	150g 감소
붕어	10.44위안/kg	10.67위안/kg	200g 감소
고추	5.11위안/kg	5.53위안/kg	1.5kg 감소
삼겹살	17.48위안/kg	18.02위안/kg	170g 감소
밀가루(중력분)	2.27위안/kg	2.33위안/kg	4.5kg 감소

주 : 베이징시 평균 소매가 기준
 자료원 : 鳳凰網財經(ifeng.com)

□ 환율 : 급격한 평가절상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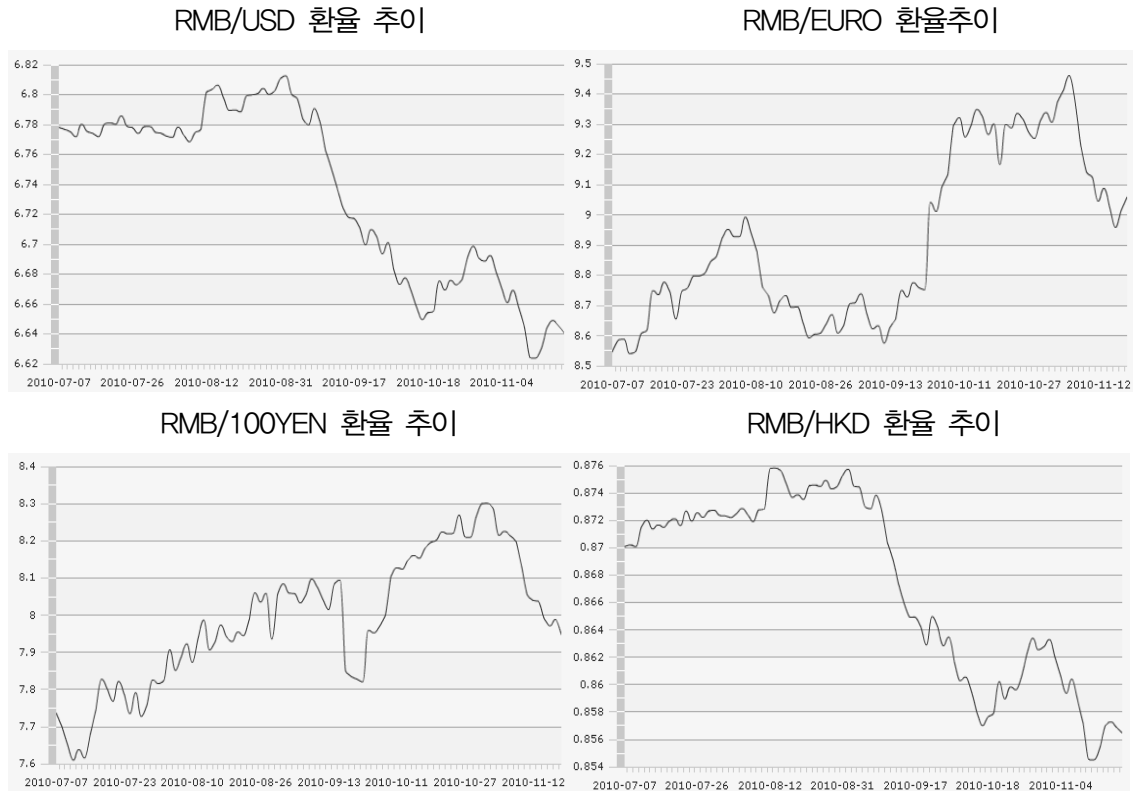
위안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 CEIC, World Bank

- 위안화는 2010년 6월 환율제도 개혁조치 이후 11월 초까지 미 달러 대비 2.3% 평가절상됨
 - 특히 9월 이후 연일 초강세 행진을 하며 역사상 가장 비싼 상황(평가절상 방향)에 있음

- 위안화의 對유로, 엔화 환율은 對미 달러 환율과 비교 시 절상-절하의 엇갈림 현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그래프 아래 방향이 평가절상)

- 기타 통화대비 미달러의 평가절하 폭이 커지면서 위안화 명목유효환율(NEER)이 시기적으로 평가절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8년과 비교하면 평가절상 상황
- 위안화 강세는 장기 고성장, 국제수지 흑자, 구매력평가 등의 저변요인 감안 시 불가피한 추세이며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정치적 압력, 대중국 투자가치, 금리 격차 등도 평가절상 압력 요인
 - 2010년 중국은 대내외 여러 악재 속에서도 급격한 평가절상을 피해감

II. 2011년 환경 전망

1. 대외환경

□ 글로벌 경제 재둔화 가능성

- 2010년 글로벌 경제는 최악의 쇠퇴국면을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재둔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재고조정(inventory adjustment) 마무리 시점과 각국의 출구전략 시점이 맞물려 나타날 수 있고 유로권 채무위기 재연 가능성 존재
 - 미국과 일본의 2010~2011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양적 완화정책의 유혹이 가시지 않음
 - 세계 무역 및 공업생산의 상승 국면도 안정적 탄력세를 받지 않고 있음

□ 더블딥 가능성 제한적

- 미국과 유럽, 일본의 불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음
 - 선진국의 무역과 자본이동이 경제 펀디멘탈과 내수가 양호한 신흥시장권 및 개도국권과 연계돼 있기 때문
 - 다만 2010년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 온 글로벌 경제 전망이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부채증가와 고실업률 등 요인이 잔존해 소비의욕이 여전히 부진함

- 공공부문 채무부담, 롤오버(rollover) 리스크, 경기전망 불확실성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중국 등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국과 미국을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국 간의 불균형은 2011년 연중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 예상

인플레이션 우려 미미

-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및 상품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돼 가격급등 요인이 크지 않음
- 석유, 곡물, 원자재 등 국제시장 가격에 상승억제 효과 발생
- 최근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정책 발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피로감에 대한 반응적 측면이 강함
-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세계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그러나 양적 완화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을 보다 확대해 국제 금융형세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
- 2010년에 나타난 식품, 공업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세는 시장조건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물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 온 중국 등 거대 신흥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

2. 대내환경

□ 성장기반 여전

- 2010년 중국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시현
 - 글로벌 차원의 성장 위축 및 수입 감소, 중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정상화,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이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 1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2011년에도 제조업 등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과 건전한 펀디멘탈이 유지돼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2010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임시 행정조치들이 2011년 초 종료되면 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11년에는 신규 정부투자 프로젝트가 속속 시행되고 내륙지역의 도시화 프로젝트 수요가 많아 새로운 전략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전망
 - 다만 이 같은 환경전개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시행해 온 4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 내수 진작정책 완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임
-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수출 증가율은 감소하겠지만 소비, 투자가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플러스 요인이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2011년에는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모두 2010년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 민감한 이슈, 물가와 부동산

- 2010년 연중 중국을 괴롭혔던 물가는 정부 관리 목표치(3%)를 가까스로 달성하거나 혹은 소폭 넘어설 것으로 예측
 - 경기 사이클 감안 시 물가는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2011년 이후 일정 기간 3% 이상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과거 경기 확장기에 나타났던 7~8% 또는 그 이상의 급상승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최근 국제시장에서 석유, 공업용 원자재, 식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으나 가격이 오를수록 향후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중국에 확산
 - 또한 중국의 주요 곡물가격은 국제시장 가격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특성이 있음
 - 2010년 발생한 전국적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은 제조업 부문이 임금 상승에 일정한 면역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부동산 가격의 경우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근본적인 변화 즉 가격의 대폭 하락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
 - 급속한 도시화, 소득 증가 및 여전히 낮은 금리, 외국 기업 및 자본의 꾸준한 유입은 부동산 수요가 급랭하기 어려운 요인
 - 부동산의 강력한 산업파급 영향력을 감안하면 웬만한 투기 움직임에도 정부가 메가톤급 억제대책을 내놓을 수 없음

□ 국제수지 흑자폭 재상승

- 2010년에는 무역수지를 비롯한 국제수지가 증가율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최근 정책방향, 추세 감안 시 재상승할 가능성
-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순외환자산도 2011년 및 이후 수년 간 큰 폭의 증가세 유지 전망

3. 성장 시나리오

□ 경제성장 여건

- 대내외 환경과 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2011년은 수출과 투자, 소비의 실질 증가율이 2010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전저후고(前低後高) 양상을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분기별로 전저후고 구조에서 2010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
- 2011년은 "12.5 계획"의 첫 해로써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개시돼 경제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특히 중서부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간이 매우 큼

□ 주목되는 리스크 요인

- 양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0~2011년 글로벌 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어 중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
 - 글로벌 불균형 및 관련국들의 정책 대응 등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는 중국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

- 또 다른 차원에서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중기적 리스크 작용
 - 인플레이션의 지속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음
 - 추가적인 충격 요인이 국제 및 중국 원자재 가격에 영향에 주고 임금의 대폭 상승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됨
 - 부동산 부문은 2011년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2010년 수차례 걸쳐 발표한 억제조치들이 효과를 보이면서 투자성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 급등세와 자산 버블화 현상도 일정부분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거래량 감소 추세가 예상돼 개발상(developer)들의 자금 여건이 어려워지고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 우려
- *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차지하며 연관 산업이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중국 주요 경제지표 예측

년 도	2008	2009	2010(f)	2011(f)
실물경제				
실질 성장률(%)	9.6	9.1	10.0	9.0
GDP 기여도(%)				
국내수요	8.8	12.8	8.0	8.5
순수출	0.8	-3.7	2.5	0.5
잠재 성장률	10.5	11.0	9.8	9.2
CPI(%)	5.9	-0.7	3.0	3.5
교역조건	-4.3	8.6	-9.0	0
대외수지(US\$ 십억)				
무역흑자	295.5	196.1	180.0	150.0
경상수지	426	209	320	360
경상수지/GDP	9.4	6.0	5.5	3.4
외환보유고	1,946	2,500	2,700	3,000
유동성				
M2 증가율(%)	17.8	27.7	-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인민은행, World Bank

□ 3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성장률 9% 내외, 물가상승률 3.5%선

- 감내 가능한 수준의 물가 상승세 속에 수출, 투자, 소비 증가율이 점진 하락하나 '12.5 계획' 추진으로 추가 성장요인이 발생할 것임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도기에 적합한 연착륙형 시나리오
- 중국정부가 가장 선호하고(성장) 감내 가능한 수준(물가)으로 발생 가능성 60% 이상 예측

○ [시나리오 2] 성장률 10% 내외, 물가상승률 4%선

- '12.5 계획' 1차 년도에 투자가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집중되고 내수가 기대수준 이상의 호조를 보이는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식품가격이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 해당하는 고성장-고물가 시나리오
- 10% 이상의 고성장은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국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설 경우 '12.5 계획'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음(가능성 30%)

○ [시나리오 3] 성장률 8% 내외, 물가상승률 5%선

- 해외시장 위축세 지속 및 중대형 돌발변수가 잇따를 경우 성장률이 2010년(예측치 10%) 보다 2% 포인트 낮은 8%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
- 내수확대 정책효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물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성장-고물가 형태로써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능성 10% 미만)

Ⅲ. 2011년 정책 방향

1. 정책기조

- 중국은 2011년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물가관리를 위해 거시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지속 추진할 전망
 -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펀디멘탈이 양호하고 성장 전망도 밝음
 -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위를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상시적 억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해온 대규모 경기자극 정책이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과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금융권 부실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지속적 거시정책 조정이 불가피
- 불확실 요소가 많아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유연성 확대에 노력할 전망
 - 국내 경기주기 상의 급속한 하락과 글로벌 유동성 과잉에 따른 대규모 금융자본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임

2. 재정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확장정책을 폈음에도 은행대출 총당 비율이 높아 GDP 대비 정부재정적자 비율이 3% 수준에 그쳐 추가적 재정정책의 공간이 있음
 - 2010년 1~3분기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각각 20.5%와 22.4% 증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정정책은 2010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강도는 소폭 줄어나갈 가능성이 큼
 - 2011년은 "12.5 계획" 1차 년도로써 신규 공공투자가 대거 이루어지겠으나 2009년과 같은 대폭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이 크지 않음은 물론 2010년 대비로도 통제된 범위에서 추진될 전망
- 재정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SOC 부문에 투입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효과를 지향할 것임
 -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하면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사회보장, 교육,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로 소비기반 확대에 나설 것이며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기업 부가세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재정정책이 활용될 수 있음
- 자원세 개혁을 지속 추진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성장의 질을 제고하려고 할 것임

3. 통화정책

- 대출규모가 통제되면서 2010년 신규대출 7조 5천억 위안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규모 축소만으로는 부족해, 보다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
 - 통화 공급과 대출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해 '과잉'과 '대폭 긴축' 양자 모두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예상됨
 - 그러나 일시 대폭 인상보다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 소폭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큼
 -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당초 계획된 실물경제(중소기업, 민간소비

부문 등)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강화될 것임

– 2011년에는 통화정책의 중점 방향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상품구조조정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부문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

–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 가능성이 연중 상존할 것으로 예상돼 외환관리가 강화되고 중국 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위안화 환율 문제는 서방의 요구대로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을 단행하기 보다는 환율 변동폭 확대가 우선 고려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2011년 위안화는 소폭 평가절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경제구조조정 및 내수 구매력 확대 차원의 조치이며 외부 압력에 의한 조치는 아닐 것임

–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 조치로는 '대외무역대금 위안화결제 시범실시 조치'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은행의 무역금융' 확대, '홍콩의 위안화 금융 및 채권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수출·투자정책

○ 수출 및 투자정책은 2010년의 틀과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됨

○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체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

–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또는 환급률 인상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음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이고 무역대금 결제, 용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임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1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육성, 수출품의 내수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도 나올 것임
-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것이며 자원 절감, 신에너지 개발 등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완할 것임
- 또한 해외 에너지원 및 글로벌 시장 확보, 新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정책을 대거 정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5. 개방정책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개방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임
-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의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출판 등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에 나설 수 있음

IV. 12.5 규획과 향후 5년 키워드

1. 12.5 규획

□ 의의

-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10월 15일~18일)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담은 "12.5 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규획)의 윤곽을 공개
- '12.5 규획'의 핵심 기조는 '양적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 '외수'(外需)에서 '내수'(內需)의 전환, 권역별 개발계획의 본격 추진 등으로 볼 수 있음
 - － 이 같은 기조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나 지난 수년간이 선언적, 모색적 단계였다면 향후 5년은 구체적, 실천적 단계가 될 것임
 - － 즉 앞으로 5년은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을 보다 세분화된 정책으로 내놓는 시기로 볼 수 있음
- 현재 중국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것임
 - － 그 동안 양적인 성장 단계에서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국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특히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것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도
 - － 이는 '국강'(國強)에서 '민부'(民富)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성(包容性) 성장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음
 - －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국가는 국가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국민 분배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근거는 중국정부가 향후 5년 간 국가 경제성장(GDP)의 폭과 국민 소득증가의 폭을 같은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천명한데서 찾을 수 있음

* '12.5 계획(안)'은 2010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고 2011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에서 심의, 통과되면 5월 정식 발표될 예정

□ 18개 핵심 산업분야

- '12.5 계획' 기간 중에는 18개 핵심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예정

- 핵심 산업은 농업, 엔지니어링기계, 문화산업, 현대식 서비스업, 철강업, 정보산업,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압전력망, 의약, 비철금속, 해양엔지니어링, 석탄, 석유화학, 가전, 제지, 교통운수, 유통 등

- 이들 업종에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됨

- 세부적으로 농업, 엔지니어링 기계, 문화, 해양과 같이 육성정책이 적용될 부분도 있고 석탄산업 등 신규진출 억제정책을 펴는 부분도 있으며 유통업처럼 중국 기업의 약진세가 점쳐지는 부분도 있음

산업별 12.5 계획

산업	방향성 및 요지
농업	- 농업,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4대 과제 제시 · 공급보장, 수확확대, 기초확충, 지속발전 - 도농 격차 축소 및 공업화·도시화 차원서 추진
엔지니어링 기계	- 시장규모 4천억 위안('10 f)→8,500억 위안으로 확대 · 기중기(crane) 시장 3백억 위안('09)→9백억 위안 - 샤궁(夏宮), 룡장(龍江) 등 11개 대형기업 집중육성
문화산업	- 시장규모 8천억 위안('09)→1조 5천억 위안 확대 - 문화산업발전 방식을 내수 위주로 전환
현대식 서비스업	- '15년 서비스업 부가가치액, GDP 50% 수준으로 제고 - 각 지방정부별 계획 사실상 마무리 단계
철강업	- 구조조정,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추진 - 낙후시설 대대적 도태, 신기술 개발 강화

산업	방향성 및 요지
정보산업	-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확대, 3망 융합, 지능화 추진 - R&D센터 설립 장려, 해외기업 인수 확대
자동차	- '15년 자동차 보유량을 '10년의 2배 규모로 확대 -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하이브리드 자동차	- 기술개발, 기술표준 가속화, 산업사슬 형성 추진 - 산업화 개발, 신비즈니스 모델 연구 노력
고압전력망	- 5년간 2,700억 위안 투자(11.5 규획의 13배 이상) - 2020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완료 - 계량기 3,000~5,000만 개 교체수요 예상
의약	- 산업화, 규모화, 집약화, 국제화 등 4化 추진 - 바이오의약 집중 육성, 기술제품 혁신, 표준 강화
비철금속	- 알루미늄, 아연 등 10종 생산량 4,100만 톤 내 통제 - 낙후시설 대거 도태
해양엔지니어링	- 5년간 3,000억 위안 투자 - 해양석유가스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시추설비 확충
석탄	-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및 신규진입 엄격 제한 - 대표적인 고투자, 고오염산업으로 신에너지화 전환
석유화학	- 2,000만 톤급 정유생산기지 다수 확보 추진 - 100대 기업이 전체 산업의 2/3를 점유토록 대형화 추진
가전	- 전통 백색가전 분야는 에너지 절감이 최대 화두 - 중국로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11년 초 발표 예상
제지	- 낙후기업 대거 도태, 생존기업 대형화 육성 - 위안화 평가절상시 대표적인 수입비용 인하 산업
교통운수	- 기초시설건설, 물류업, 에너지절감차량, 운수장비 - 전국적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추진
유통	- 국유상업자본 시장지배력 강화 추진 - 브랜드, 지재권, 국제경쟁력 갖춘 대형업체 30개 육성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부, 상무부 등

□ 7대 신흥전략산업

-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8일 발표한 '신흥전략산업 양성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
 - 세수 및 금융관련 정부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

- 신흥전략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메커니즘 수립
- 신흥전략산업관련 분야에 대한 대출확대 방침도 명시
-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

○ 국무원은 외국자본의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 '국무원의 외국자본유치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해 개방범위를 확대, 외국자본의 신흥전략산업 투자를 장려할 계획(구체적 세제혜택 방안 검토 중)

7대 신흥전략산업의 핵심 육성부문

산업	핵심 육성부문	주관부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자동차, 가전 등 에너지절약 및 혁신강화 -철강, 공업 부문 낙후설비 도태, 구조조정	발전개혁위원회
신정보기술	-3망(전신, 컴퓨터, TV네트워크) 융합 -고성능 집적회로 및 하이테크 S/W 개발	공업신식부
바이오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업, 바이오헬스 -발개위 등 관련 부처 승인 대기 중	발전개혁위원회
첨단장비제조	-궤도교통시설, 해상석유가스 엔지니어링, 첨단 선박, 공작 및 절삭기계류 개발	공업신식부
신에너지	-발개위 심사 통과 후 국무원에 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소재, 핵융합, 지열 등	발전개혁위원회
신소재	-나노 중심의 신소재, 복합소재 응용	공업신식부
신에너지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태양력자동차, 수소에너지 자동차 등	공업신식부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2. 향후 5년 키워드

□ 그린 비즈니스

- "12.5 계획"에 친환경 프로젝트가 다량 포함돼 있어 중국경제가 녹색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 향후 5년은 물론 10년 이후 장기적으로도 대규모 비즈니스 수요가 이어질 전망
- 환경,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 프로젝트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추진 및 내수시장 개방 확대 추세로 시장 진입기회가 확대 일로
 -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 분야로는 오폐수 처리장, 바이오매스 발전소,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 열병합 발전, 폐열회수 난방, 폐목재 발전, U-City/Eco-City 프로젝트 등
- 프로젝트 참여 성공을 위해서는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타당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유력 중국 파트너 기업 발굴이 전제돼야 함
 - 중국 측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도 필요

□ 온라인 쇼핑

- 2010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네티즌 수는 4억 2천만 명(보급률 31.8%)이며 이 가운데 1억 4천만 명이 온라인 거래 중
 - 온라인 시장 규모가 4조 3,400억 위안에 달하며 향후 중국시장의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한국기업의 진출확대가 시급히 요청
- 우리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소비자 간 거래 중심인 종합 쇼핑몰 형태의 C2C에서 기업 대 소비자 관계인 B2C 시장으로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음
 - 구매력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특급 도시가 다른 지역을 크게 앞서지만 시장 성장률에서는 지방 2~3선 도시들이 약진
- 시장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한국관' 참여 확대 ▶복수의 전략품목 선정 ▶진출 플랫폼 다양화 ▶B2B2C 전략 구사 등이 있음

중국 온라인쇼핑시장 진출 유망품목

인테리어 제품	영유아 및 아동용품	패션시계
-중국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 경향이 강함 -가정용소품 인터넷구매 붐 확산으로 한국산 커튼, 전등, 옷장, 책장, 벽지 등 시장진출 유망	-'빠링허우'('80년대 이후 출생자) 부모세대 출현으로 분류, 지저귀, 우유병 및 소독기, 지능형 완구 등 인터넷구매 확대 -한국산 아동문구 컬러와 디자인 인기 추세	-패션화, 개성화 중시 학생, 청년층은 가격대비 품질우수 시계 선호 -중국 시계시장은 외국산 고가품과 중국산 짝퉁으로 양분화될 정도로 단순, 한류접목 마케팅 병행 시 승산
남성용 화장품	디지털제품	소형 가전제품
-비비크림 판매 열풍 이후 한국 화장품 인기 상승 -중국도 20~30대 중심으로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어 온라인시장을 통한 조기진출이 필요한 시점	-일반 전자제품은 한국산과 일본산이 대등한 인기이며 디지털제품은 한국산이 오히려 우수한 평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 3대 디지털제품 온라인시장서 인기	-소형가전은 중국에서 가장 온라인 지향적 제품 -가정주부, 나 홀로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형 밥솥, 믹서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청소기, 소형TV, 전화기 등 유망

□ FTA

- 2010년은 중국이 양자 경제외교의 핵심 틀로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으며 중국의 FTA 추진 노력은 12.5 기획 기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중-아세안 FTA 전면 발효(1월 1일) 이후 중-페루 FTA 실시(3.1), 중-대만

ECFA 체결(6.29), 중-칠레FTA 서비스무역협정 실시(8.1), 중-스위스 FTA 공동연구 완료(8.13) 등

- 중국의 FTA 외교는 우리 기업에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FTA 체결국이 한국과 겹치는 부분(아세안, 칠레, 페루 등)이 많아 해외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중-대만 ECFA가 대만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확대로 연결되면서 한중(또는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판단이 요청
 -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FTA를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

□ 권역경제

- 중국은 최근 다수의 구역규획(區域規劃)을 발표, 행정구역의 개념을 뛰어 넘은 광역권 개발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하이난 국제관광지건설계획(1.4), 장강삼각주지역규획(5.24), 샤먼경제특구확대규획(6.20)을 발표했고 장강델타지역계획, 충칭양강신구계획, 신장자치구 진흥규획, 내몽고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
- 권역별 경제특성과 시장발전 추세, 육성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출해야함
 - 이를 위해 12.5 규획, 7대 신흥전략산업도 전국 범위는 물론 권역별로 정보와 프로젝트를 수집,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끝/

중국 주요 경제지표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1~10
GDP(억위안)	211,923	249,530	314,045	335,353	268,660
1인당 GDP(US\$)	1,959	2,456	3,312	3,678	—
경제성장률(%)	11.6	13.0	9.6	9.1	10.6
소비자물가상승률(%)	1.5	4.8	5.9	-0.7	3.0
도시등기 실업률(%)	4.1	4.0	4.2	4.3	4.1
소비재 매출(억위안)	76,410	89,210	108,488	125,343	125,313
증가율(%)	13.7	16.8	21.6	15.5	18.3
교역액(US억\$)	17,607	21,738	25,616	22,073	23,934
증가율(%)	(23.8)	(23.5)	(17.8)	(-13.9)	(36.3)
수출(US억\$)	9,691	12,180	14,285	12,017	12,706
증가율(%)	27.2	25.7	17.2	-16.0	32.7
수입(US억\$)	7,916	9,558	11,331	10,056	11,228
증가율(%)	20.0	20.8	18.5	-11.2	40.5
무역수지(US억\$)	1,775	2,622	2,955	1,961	1,478
증감율(%)	(74.2)	(47.7)	(12.7)	(-33.6)	(-6.7)
FDI(실행기준, US억\$)	695	748	924	900.3	820.03
증가율(%)	15.3	13.6	23.6	-2.6	15.71
외환보유고(US억\$)	10,663	15,282	19,500	23,992	26,483
증가율(%)	30.2	43.3	27.3	23.0	16.5
총외채(US억\$)	3,229.9	3,736.18	3,746.61	4,286.47	5,138
증감율(%)	14.9	15.7	0.3	14.41	—
기간 말 기준 환율 (RMB/US\$)	7.9718	7.3046	6.8346	6.8282 (2009.12.31)	6.6553 (2010.11.26)

주 : 각년도 GDP 수치는 2010.7.24. 발표 수정치 반영(2010년 수치는 1~9월 실적)
 : 2010년 도시등기 실업률 및 외환보유고는 1~9월 기준
 : 2010년 총외채는 1~6월 기준
 : 환율은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 기준(2010년 6월 19일부 환율개혁조치 이후 소폭 등락세)
 자료원 :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외환관리국, 인력자원부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3
10-006	독미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10-017	중앙아시아 건설중장비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0.7
10-018	러시아 산불 피해 동향 조사	2010.8
10-019	신흥시장의 알파기업에서 배운다	2010.8
10-020	태국 정부조달 이렇게 접근하라	2010.8
10-021	한-페루 FTA 활용 진출전략	2010.8
10-022	한-EU FTA 발효에 대한 EU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 조사	2010.8
10-023	해외사례로 보는 모바일비즈니스 성공 비결	2010.10
10-024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 특수 활용방안	2010.10
10-025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10
10-026	18억 할랄 시장을 잡아라	2010.10
10-027	인도의 반덤핑제재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11
10-028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 후 1년	2010.11
10-029	신흥시장 40억 저소득층에 주목하라	2010.12
10-030	GMS(메콩강유역) 개발사업 국별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2010.12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10-008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PIGS 국가별 변화 양상	2010.8
10-009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2010.11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 가입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 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10-02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2010.7
10-021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 라마단(금식월)과 비즈니스 시사점	2010.8
10-022	미국의 대이란 포괄적 제재법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010.8
10-023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따른 주요국 시장 동향	2010.9
10-024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9
10-025	디자인에서 '리'자인 시대로	2010.10
10-026	2010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10
10-027	美 환율법안 추진에 따른 국내업체 파급효과 전망	2010.10
10-028	일본 소비재 시장의 최신동향	2010.10
10-029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체 시사점	2010.11
10-030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와 국내 업체 영향	2010.11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0년 수출전망	2010.11
10-032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점검	2010.11
10-033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해외 바이어 및 투자가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10.11

□ KOCH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10-007	중국 내수 신흥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10-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0.7
10-011	독일기업 사례로 본 중국시장 진출 전략	2010.10
10-012	10년의 대개발, Mega시장으로 떠오른 中 서부	2010.10
10-013	상하이 엑스포 200% 활용한 우리기업	2010.10
10-014	중국 온라인 시장, 빅뱅 마켓을 잡아라	2010.11
10-015	상하이 엑스포 국가브랜드 제고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11
10-016	미래 중국시장, 우리기업 성공 전략	2010.12
10-017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2010.12
10-018	日 기업, 중국시장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	2010.12
10-019	중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웰빙제품	2010.12
10-020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2010.12

□ FDI Them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일본·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2010.10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년 1000대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2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2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2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2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3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해외 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0.2
10-012	중동 ·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유치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 소매유통시장 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류기기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10-047	국가 및 산업 브랜드 맵	2010.6
10-048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결과보고서	2010.7
10-049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2010	2010.8
10-050	국내주요기관 해외네트워크 2010	2010.9
10-051	2010년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10.9
10-052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3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4	주요국 IT부품시장 진출가이드	2010.9
10-055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6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7	주요국 10대 유망 소프트웨어	2010.9
10-058	2009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0.9
10-059	그린리포트(Vol 9. 2010 Autumn)	2010.10
10-060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2010.10
10-06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10.11
10-06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0.11
10-063	2010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0.11
10-064	해외진출종합가이드 (개정판)	2010.12
10-065	중동의 미개척 시장을 가다	2010.11
10-066	주요국 IT유통망 진출가이드	2010.11
10-067	Guide to Living in Korea 2011	2010.12
10-068	韓國生活 가이드북 2010	2010.12
10-069	브라질 이머징 시장동향	2010.12
10-070	칠레 이머징 시장동향	2010.1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I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
10-024	〈핵심고객 초청〉 중남미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5	〈핵심고객 초청〉 CIS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6	〈핵심고객 초청〉 인도,베트남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7	중남미 이러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0.9
10-028	Merck Venture Initiative	2010.9
10-029	KOTRA 중남미클럽 3차 포럼	2010.9
10-030	제 3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9
10-031	EU 상표 · 디자인 출원 설명회	2010.10
10-032	Global Marine Tech 2010 세미나	2010.10
10-033	제 2회 국제 카본 포럼	2010.10
10-034	한-EU 그린산업 컨퍼런스	2010.10
10-035	제 2회 한-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2010.10
10-036	2010 한-중 지재산(IP) 보호전략 포럼	2010.10
10-037	북미 · 유럽 온라인유통 설명회	2010.10
10-038	Green IT: Display/LED 2010	2010.11
10-039	신시장, 신기회 미개척 전략지역 투자진출 설명회	2010.11
10-040	중국, 베트남 해외투자전문가초청 설명회 개최	2010.11
10-041	제 3회 해외진출지원기관 워크샵 개최	2010.11
10-042	2010 해외 투자 우수사례집	2010.12
10-043	GMS 개발사업 진출전략 설명회	2010.12

－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
－ KOCHI자료 10-020 －

발행인 : 조 환 익
발행처 : KOTRA
편집인 : 곽 동 운
발행일 : 2010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인 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Copyright ©201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